

■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시설 오름 정상 설치 계획 법 위반 '논란'

# 설치 불가지역... 도·국토부 몰랐다?

### 조례상 절대보전지역 기생화산내 설치 불가 도, 지난 4월 건축 허가... 어제부터 본격 공사

속보=한라산국립공원에 들어설 국가 레이더 시설(한리일보 10월 13일자 3면)을 둘러싸고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절대보전지역이자 기생화산으로, 관련법에는 절대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레이더 용도의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레이더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란 사실도 모른채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6개월 만에 공사 시작=13일 오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휴게소에서 북동쪽으로 난 콘크리트 도로를 따라 200여m를 올라가자 컨테이너로 된 가설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다.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업체의 현장사무소로 군부대 통신탑 바로 옆에 있다. 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항공로를 오가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내구연한(14년)이 도래한 서귀포시 동광레이더를 최신 기술이 도입된 남부 항공로 레이더로 교체해 운용할 계획이다.

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1100고지 인근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4월 건축 허가가 났지만 공사는 이제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 임도 개설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지난 6일야 승인됐기 때문이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났기 때문에 오늘(13일)부터 건설자재를 옮기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름인줄 몰랐다"=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 예정지는 절대보전지역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등산로, 산책로, 공원 등 공의 목적 시설만 도시사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또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조례상 전파법에 따른 무선시설에 해당한다. 단 레이더는 '절대보전지역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레이더를 건설하려면 지하 5m까지 지반을 파야하지만 제주

도는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건설예정지가 기생화산인 삼형제큰오름 정상이라는 점이다. 조례는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선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고정군 박사는 "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 예정지는 지질학적으로 삼형제큰오름이 맞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도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오름인 줄은 몰랐다"고 인정했다. 단 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개정 목적은 한라산국립공원 밖에 있는 오름에 대한 건축 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개정 취지에 비

취보면(건설 예정지는 국립공원 내 오름이고) 레이더 건설에 필요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충족했기 때문에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는 무선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대상을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또는 국립공원 밖 오름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설계 용역에 따라 국토부는 후보지에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 관계 법령과 행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보전지역 오름에 대한 레이더 건설 불가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뒤늦게 "법 위반 여부를 지금이라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오는 날, 용두암 배경으로 '찰칵' 13일 제주시 용두암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민기자

## 제주 학교 급식실 산재 3년간 55건

### 사고비율 2.09%...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아 노동자 손가락 골절·절단사고도 계속 발생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산재사고는 5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6건 >2019년 14건 >지난해 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급식인력은 1199명으로, 발생비율은 2.09%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 2.40%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 발생비율 1.08%에 비교하면 2배 이상 높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급식소에 음식물 감광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단기가 갑자기 작동하며 급식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이석문 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잇따른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1일 도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또다시 노동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윤영덕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다. 교육감은 말보단 행동으로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 "제주칼호텔 노동자 해고 사태 막아야"

### 도의회-노동단체 간담 "제주도정 개입토록 주문"

제주도의회가 제주칼호텔 직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제주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도정에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좌남수 의장과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칼호텔 노동자와 노동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제주칼호텔 매각에 따른 근로자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고용승계 없는 매각 상황에 대해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제주도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현길호 위원장은 "제주칼호텔 종사자 300여명의 실업 문제는 제주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 요청사항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칼호텔 지부 위원장은 "한진그룹은 1972년부터 호텔과 관광, 항공, 물류, 먹느샘물 등 제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제주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기자



국토교통부가 설치할 국가 레이더 시설인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 부지. 건설 예정지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절대보전지역이자 기생화산인 삼형제큰오름 정상으로, 법에는 보전지역 내 기생화산에는 레이더와 같은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상민기자

### 간호사에 흉기 50대 입건

제주에서 방문 치료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의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50대 초반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의 육장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간호사 B씨(30대 초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를 막으려다 손 부위를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지만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어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 아내 폭행한 40대 집유

아내와 딸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와 딸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유리 화분을 B씨의 머리에 던진 뒤 목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2-3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저지하기 위해 둔기로 B씨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깨트리고 B씨의 손과 다리를 수회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민성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